

최재형 또 금빛 질주...전국장애인동계체전 5연패 완성



크로스컨트리 2관왕 달성...입문 첫 해 7위서 꾸준히 성장
육상 체력 바탕 설원 최강자 입증...열악한 환경서도 최선

제23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크로스컨트리에서 전남 최재형(25·한국농어촌공사)이 5연패 위업을 달성했다.
최재형은 지난 29일 강원도 알펜시아 바이애슬론경기장에서 열린 남자 크로스컨트리 남자 6km Free IDD (동호인부)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며 대회 5연패에 성공했다. 그는 30일 4km Classic IDD (동호인부)에서도 우승하며 대회 2관왕에 올랐다.
최재형은 지난해 대회 3관왕에 이어 변함없는 기량을 입증했다.
처음부터 정상이 그의 자리는 아니었다. 최재형은 스키를 처음 시작한 2014년 첫 출전에서는 7위에 머물렀으나 해를 거듭하며 꾸준히 성장했고, 2019년 이후로는 메달을 놓치지 않고 있다. 5연패에 성공한 최재형은 "재밌다. 재밌어서 계속 참가하고 있다"고 우승 소감을 전했다.
매년 금메달을 목에 걸고 있지만 정상을 지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느끼지 않는 모습이었다. 경기 중 어려웠던 점을 묻는 질문에도 그는 "없었다"고

답답하게 말했다.
대회를 마친 기본 역시 "후련하다기보다는 그냥 재밌다. 계속 즐겁게 운동하고 싶다"고 웃었다.
강진 덕수학교 출신인 최재형은 하계 종목인 육상 중·장거리 선수로 활약했다.
고등학교 재학 시절 800m, 1500m를 주 종목으로 삼았고, 이를 통해 다져진 체력이 그의 강점이었다.
이러한 점을 눈 여겨본 전남장애인체육회의 권유로 그는 크로스컨트리에 입문했다.
전남장애인 스키부를 이끄는 박금복 감독은 "육상 중·장거리 선수라 체력이 좋아 크로스컨트리에 잘 맞았다"며 "시작한 지 7년 정도 됐는데, 매년 꾸준히 금메달을 따고 있다"고 설명했다.
훈련 여건이 좋지 않다. 실제 눈 위에서의 훈련을 진행한 것은 대회 직전 20일 정도에 불과하다.
여름에는 육상 훈련을 중심으로 체력을 유지하고, 대회 두 달 전부터 인라인 훈련을 병행한다. 겨울이 되면 강원도로 이동해 하루 오전·오후 각각 2시간 반씩 훈련을 소화한다.

박 감독은 "여름에는 중·장거리 훈련을 하고, 겨울에 강원도로 올라와 집중 훈련한다"며 "힘든 환경 속에서도 선수들이 끝까지 잘 따라와준다"고 말했다.
코치 수급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
그는 "겨울에는 일반 선수들도 대회 일정이 겹쳐 지도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며 "장애인 스키를 지도할 수 있는 인력이 거의 없어 이번에도 지인들의 도움으로 20일 정도만 코치를 어렵게 구했다"고 털어놓았다.
이번 대회에서는 덕수학교 소속 선수들의 선전도 이어졌다.
덕수학교 강유림(14)은 여자 크로스컨트리 6km Free IDD와 4km Classic IDD(동호인부) 종목에서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하며 전남 선수단의 메달 행진에 힘을 보탰다.
박 감독은 앞으로 목표에 대해서 "최재형은 잘 하고 있다"며 "올해 신규 선수 3명을 영입했는데, 최재형의 뒤를 이어 그 밭의 선수들도 같이 더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회를 마친 최재형은 곧바로 하계 시즌 준비에 돌입한다.
그는 육상 훈련으로 다시 체력을 다진 뒤, 또 한번 설원의 질주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연수 기자 training@kwangju.co.kr



30일 강원도 알펜시아 바이애슬론경기장에서 열린 제23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크로스컨트리 남자 6km Free IDD(동호인부) 경기에서 전남 최재형이 힘차게 질주하고 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제공>

실책에 발목...광주도시공사, 서울시청에 역전패

28-29패...7점차 리드 못 지키
함지선, 개인 통산 400골 달성



광주도시공사
가 서울시청을 상대로 전반에 7골차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아쉬운 역전패를 기록했다.
광주도시공사는 1일 광주 빔고을체육관에서 열린 신한 SOL Bank 2025-2026 핸드볼 H리그 여자부 1라운드에서 서울시청에 28-29(16-11 12-18)로 패했다.

이날 경기로 시즌 2승 4패(승점 4점)가 된 광주도시공사는 6위에 머물렀다.
경기 초반 흐름은 광주도시공사가 주도했다. 초반 공방이 전개된 가운데 광주도시공사는 함지선의 속공과 최수지를 활용한 원 공격으로 활로를 찾으면서 4-3으로 앞서갔다.
이후 서울시청의 실책이 잇따르며 경기 흐름은 광주도시공사 쪽으로 기울었다.
광주도시공사는 강주빈·김지현·최수지가 연속 득점에 성공하며 7-3까지 달아났다. 이후 강주빈과 최수지가 연달아 속공으로 점수를 더하면서 중반, 11-5까지 격차를 벌렸다.
광주도시공사는 7명을 공격에 투입하는 승부수를 던지며 흐름을 이어갔고, 전반 막판 15-8까지 점수 차를 벌리며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왔다.

한때 서울시청 정진희 골키퍼의 선방에 흐름이 끊기기는 했지만 광주도시공사는 16-11로 앞선 채 전반을 마쳤다.
그러나 후반전 들어 흐름이 달라졌다.
광주도시공사의 실책이 잇따르며 서울시청의 추적이 시작됐고, 16-14까지 점수 차가 좁혀졌다.
이후 이민지 골키퍼의 선방으로 20-17까지 달아났지만, 공격 과정에서의 실책과 수비 불안이 겹쳤다.



광주도시공사 이민지 골키퍼가 1일 광주 빔고을체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청과의 신한 SOL Bank 2025-2026 핸드볼 H리그 여자부 1라운드 경기에서 슈트를 막아내고 있다. 이민지는 이날 7세이브를 기록하며 골문을 지켰다. <한국핸드볼연맹 제공>

김지현의 2분간 퇴장과 함께 서울시청에 7m 드로우를 내주며 20-19까지 쫓긴 광주는 결국 후반 20분 송지영에게 동점골과 역전골을 연속으로 내주면서 20-21 역전을 허용했다.
이후 양 팀의 시소게임이 펼쳐졌고, 경기 종료 5분을 남기고 26-26으로 팽팽하게 맞섰다.
광주도시공사의 경기 막판 집중력이 아쉬웠다. 서울시청 우빛나가 적극적인 돌파로 광주도시공사의 수비를 흔들었다. 종료 2분여를 남기고 김지현이 동점골을 시도했지만 공이 골대를 맞고 높이 뜨며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결국 광주도시공사는 마지막 기회를 살리지 못한 채 종료 1분 30여 초를 남기고 결승골을 허용하며 28-29로 경기를 마쳤다.
광주도시공사 김지현이 9골로 분전했고, 이호진과 최수지가 나란히 5골씩을 기록했다. 이민지 골키퍼는 7세이브를 기록했다.
함지선은 이날 경기로 개인 통산 400골을 달성했지만 팀패배로 아쉬움을 삼켰다.
광주도시공사는 오는 6일 오후 7시 청주 SK호크스아레나에서 경남개발공사를 상대로 분위기 반전을 노린다.
/박연수 기자 training@

광주시체육회, 지정스포츠클럽 공모사업 선정

전남도체육회, 47개 프로그램 선정...15억9500만원 국비 확보

광주시체육회와 전남도체육회가 대한체육회가 주관한 "2026년 지정스포츠클럽 전문선수반 및 특화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지역 스포츠 활성화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전국 17개 시도 163개 지정스포츠클럽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공모에서 시체육회 7개 지정스포츠클럽, 26개 프로그램(전문 7, 특화 19)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에 따라 전문선수반과 특화프로그램에는 1년간 각각 3억5000만원과 5억7000만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전문 및 특화프로그램 사업은 ▲서구스포츠클럽(체육취약계층, 지역특화, 학교연계), 바둑(전문선수반) ▲광주거점스포츠클럽(체육취약계층, 학교연계), 축구·태권도(전문선수반) ▲송원스포츠클럽(지역특화, 기타유형), 배드민턴(전문선수반) ▲동강공공스포츠클럽(지역특화, 학교연계, 기타유형) ▲빛고을스포츠클럽(체육취약계층, 지역특화, 기타유형), 농구·탁구·배드민턴(전문선

수반) ▲광산남부스포츠클럽(기초·비인기종목, 지역특화, 기타유형) ▲광주다움스포츠클럽(체육취약계층, 지역특화, 기타유형)이다.
전남도체육회는 전문선수반 12개와 특화프로그램 35개 등 총 47개 프로그램이 선정돼 15억9500만원 규모의 지원을 받게 됐다.
전문선수반 12개 프로그램에 총 5억 7500만원, 특화프로그램 35개에는 10억 2000만원이 각각 배정된다.
전남에서는 공모에 신청한 49개 프로그램 중 총 47개가 선정되면서 97%의 높은 선정률을 기록했다. 특히 전문선수반은 신청한 12개 전부가 선정돼 100% 선정률을 장식했다.
클럽별로는 여수스포츠클럽이 총 5개 프로그램, 2억100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됐으며, 목포·순천·나주스포츠클럽 등도 이번 공모에 선정되면서 지역 스포츠클럽 육성과 전문선수 발굴·양성 기반 강화에 도움을 받게 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이상호, 스노보드 월드컵 평행대회전 우승

통산 4번째 금메달

이상호(넥센원가드)가 2026 밀라노·코르티나 달페초 동계 올림픽 직전 열린 국제스키연맹(FIS) 스노보드 월드컵에서 정상에 올랐다.
이상호는 31일(현지시간) 슬로베니아 로글라에서 열린 2025-2026 FIS 스노보드 월드컵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2021년 11월 러시아 반노예, 2024년 1월 불가리아 팜포로보, 2024년 3월 독일 빈터베르크 대회에 이은 이상호의 FIS 월드컵 4번째 금메달이다.
이상호는 지난해 3월 폴란드 크르니차에서 열린 평행대회전 경기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뒤 약 11개월 만에 월드컵 시상대에 섰다.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남자 평행대회전 은메달을 따내 한국 스키·스노보드 사상 첫 올림픽 메달리스트로 이름을 남겼던 이상호는 코 앞으로

다가온 밀라노·코르티나달페초 올림픽에도 같은 종목에 출전할 예정이다.
56명이 나선 예선을 전제 2위 기록으로 통과한 이상호는 16강전에서 다리오 커비즐(스위스), 8강전에서 가브리엘 메스너(이탈리아), 준결승에선 팀 마스트나크(슬로베니아)를 연파하며 결승에 올랐다.
결승에선 이번 시즌 월드컵 3승을 거둔 45세 베테랑 톨란드 피슈날라(이탈리아)를 간발의 차로 따돌리고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경기 결과 기록지엔 두 선수의 격차가 '0.00'으로 표기되고, 포도 피니시로 승자가 가려질 정도의 접전이었다.
이번 대회 남자 평행대회전에 함께 출전한 김상겸(하이원)은 5위에 올랐다.이상호와 김상겸이 출전하는 동계 올림픽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 경기는 오는 8일 열린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산책

광주예술의전당 개관 35주년 기념
2026 그랜드 오케스트라 위크

2026. 2. 3. - 6. 19:30

광주예술의전당 개관 35주년 기념
2026 그랜드 오케스트라 위크

일시 : 2026-02-03(화)~2026-02-06(금)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36

광주예술의전당 전시지원 공모전시
미술완보 : 민은주 개인전

일시 : 2026-01-23(금)~2026-02-22(일)

공연 있는날 10:30 ~ 19:30

공연 없는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광주예술의전당 개관 35주년 기념
2026 그랜드 오케스트라 위크

2026. 2. 3. - 6. 19:30

광주예술의전당 개관 35주년 기념
2026 그랜드 오케스트라 위크

일시 : 2026-02-03(화)~2026-02-06(금)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36